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최경주 아쉬운 준우승

PGA 바클레이스 최종 14언더파 페덱스컵 포인트 랭킹 5위→2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첫 대회인 바클레이스에서 우승컵을 놓쳤지만 포인트 랭킹에서 2위로 올라섰다.

최경주는 27일(이하 한국시간) 뉴욕주 해리슨의 웨스트체스터 골프장(파71·6천83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0타로 스티브 스트리커(미국·268타)에게 우승컵을 넘겨 주며 2위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우승상금 1천만달러가 걸린 페덱스컵 포인트 랭킹 5위(9만7천500점)로 출발한 최경주는 5천400점을 보태 10만2천900점을 확보, 2위로 도약했다.

이와 함께 최경주는 올 시즌 442만9천659달러의 상금을 받아 PGA 투어 상금 랭킹 3위로 올라 섰고 세계랭킹에서도 10위 진입을 눈앞에 뒀다.

포인트 랭킹 12위(9만5천950점)였던 스티브 스트리커는 6년여만에 우승컵(통산 4승)을 들어 올리며 9천점을 추가, 10만4천950점으로 1위로 치고 나갔다.

이날 경기 양상은 후반에 들면서 챔피언조의 최경주, 스트리커의 매치 플레이 양상으로 흘렀다.

스티브 스트리커가 14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를 허용한 최경주는 15번홀(파4)에서 11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주먹을 불끈 쥐었을 때만 해도 우승컵이 눈앞에 보였다.

그러나 최경주가 16번홀(파3)과 17번홀(파4)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한 사이 스트리커는 연속 버디를 성공시키며 1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8번홀(파5)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밖에 없었던 최경주는 페어웨이 우드로 2운을 노렸지만 불은 그린 왼쪽 벙커에 빠졌다.

최경주는 세번째 샷을 홀 3m 옆에 떨어뜨린 바디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에 스트리커는 여유있게 버디를 잡아내며 플레이오프 첫번째 대회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신인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1타를 줄이며 7언더파 277타, 공동 17위로 대회를 마치는 선전을 펼쳤다. 앤서니 김은 포인트 순위를 42위에서 35위(9만3천75점)로 끌어 올렸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바클레이스 대회에 불참해 페덱스컵 포인트 추가 없이 10만점으로 4위로 밀려났다.

2라운드에서 탈락했던 나상욱(23·나이키골프)과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점수를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다음대회인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 나가는 기회를 잡았다. 포인트 랭킹 상위 120명이 겨루는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은 31일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TPC에서 열린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27일현재)

1	스티브 스트리커	10만4천950점
2	최경주	10만2천900점
3	로리 사버테니	10만650점
4	타이거 우즈	10만점
5	필 미켈슨	9만9천612점
6	비제이 싱	9만9천점
7	짐 퓨릭	9만8천850점
8	잭 존슨	9만7천350점
9	애덤 스콧	9만7천150점
10	애니 엘스	9만6천966점
35	앤서니 김	9만3천75점
96	나상욱	8만8천375점
100	위창수	8만8천150점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초아 ‘무적시대’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우승

박인비·김초롱 2위, 오지영 6위

새로운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오초아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골프장(파72·6천327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공동 2위 그룹에 5타 앞서며 여유있게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오초아는 이로써 8월 들어 열린 세 번의 대회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상금, 다승, 평균 타수 등 사실상 전 부문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6일 브라티시어자오른, 20일 캐나다오픈에 이어 한 달 새에 3승을 보태 개인 통산 15승째를 채운 오초아는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6승을 올려담으며 ‘무적시대’를 예고했다.

버디를 무려 9개나 뽑아내며 8언더파 64타로 개인 통산 최저타를 휘두른 박인비(19)는 최종합계 7언더파 209타로 김초롱(23) 등과 함께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신인 오지영(19)은 6언더파 210타로 6위를 차지해 생애 처음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는 기쁨을 맛봤다. 그러나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짧은 거리의 퍼팅에 실패하며 보기에 그쳐 공동 2위까지 오를 수 있던 기회를 날린 것이 아쉬웠다. /최재호기자 lion@



27일 뉴욕주 해리슨의 웨스트체스터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바클레이스 최종 라운드 1번홀에서 칩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내일 스페인과 8강행 다름

U-17 월드컵 축구 16강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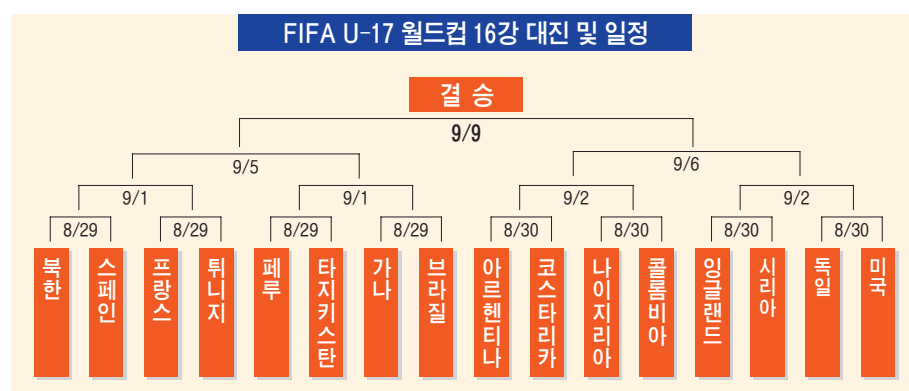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16강 진출국이 확정됐다.

지난 26일 열린 대회 조별리그 E조, F조 최종전을 통해 16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진 가운데 각 조 3위 6개팀 중 상위 4개팀에 주어지는 16강 진출 와이드카드를 B조 북한, C조 시리아, F조 콜롬비아(이상 1승1무1패)와 E조 타지키스탄(1승2패·4득점 5실점)에게 돌아갔다.

남미가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4개 출전국 모두 16강에 올랐고, 유럽은 5개국 중 잉글랜드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네 팀이 1차 관문인 조별리그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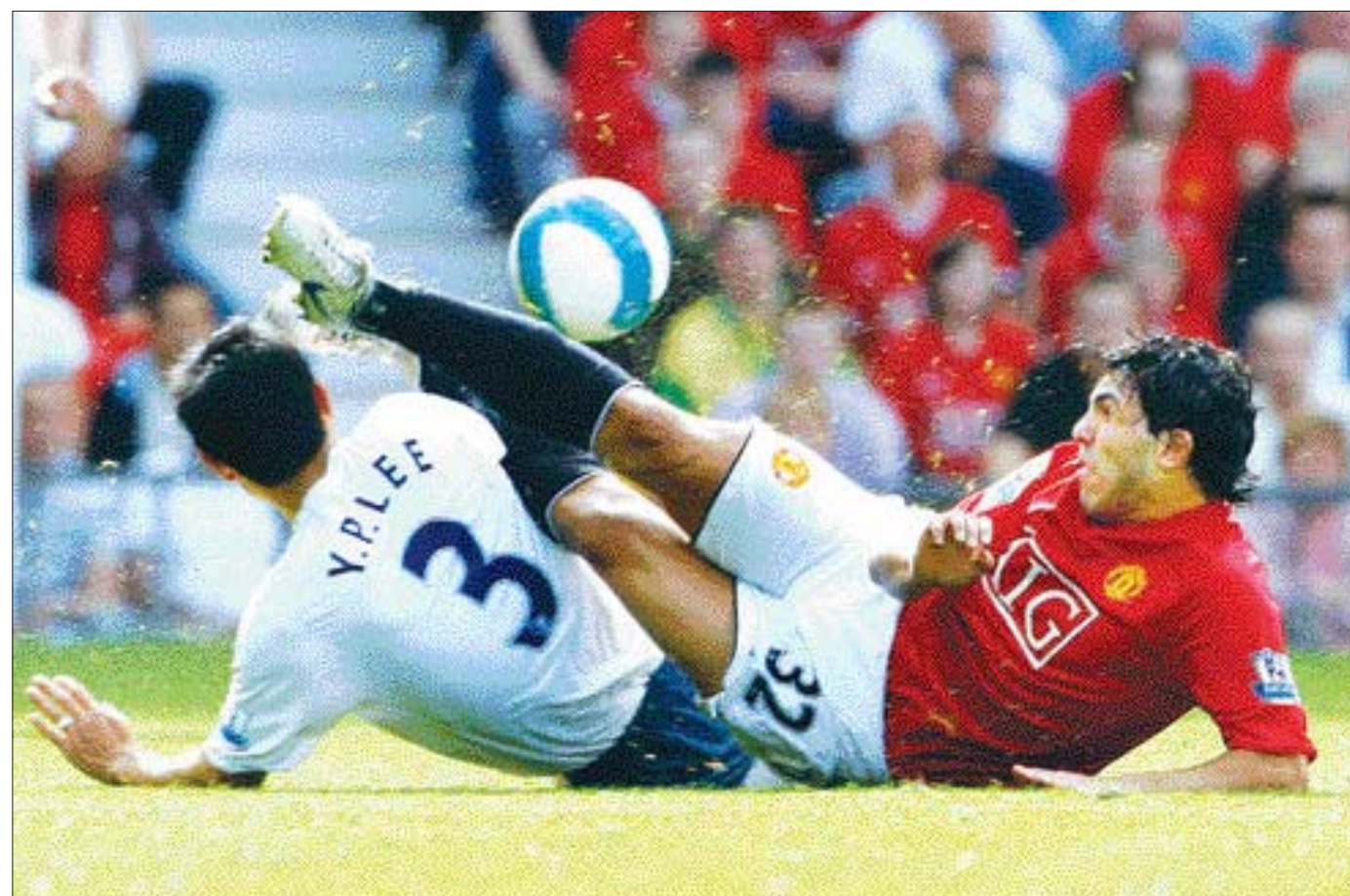
4개국이 출전한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와 튀니지, 가나 등 세 팀이 16강에 합류했다.

북중미에서는 5개 참가국 중 코스타리카와 미국만 살아 남았다. B조 3위로 16강에 오른 북한은 스페인과 29일 오후 5시 울산중



광양선 가나-브라질(29일), 나이지리아-콜롬비아(30일)

함운동장에서 8강 티켓을 다툰다. 이 대회 결승에서 두 차례 맞붙어 우승을 한 번씩 나눠 가졌던 브라질과 가나도 일찌감치 16강에서 만났다. 튀니지-프랑스, 페루-타지키스탄,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 나이지리아-콜롬비아, 잉글랜드-시리아, 독일-미국도 8강 길목에서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갖게 됐다. 한편 광양에선 오는 29일 오후 8시 가나-브라질전과 30일 오후 5시 나이지리아-콜롬비아전 등 16강전 2경기가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영표 위험!” 토트넘의 이영표(왼쪽)가 27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 카를로스 테베스와 공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호, 박성화호 첫 승선

내달 9일 바레인전 23명 확정

올림픽축구대표팀의 해결사로 떠오른 이근호(대구)의 빈 자리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의 주장 박주호(송실대)가 맡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오후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바레인 원정(한국시간 9월 오전 1시·바레인 마나마)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대표팀은 31일 정오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서 오후 11시55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5일간 시차 적응 및 조직

력 훈련에 나서고, 현지시간으로 6일 오전 바레인으로 이동해 마지막 전술훈련을 펼치게 된다. 다음은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2차전 소집 명단(23명). ▲GK=정성룡(포항), 양동원(대전), 송유걸(인천) ▲DF=김창훈(고려대), 강민수(전남), 김창수(대전), 김진규(서울), 이요한(제주), 정인환(전북), 신광훈(포항), 박희철(포항), 배승진(요코하마) ▲MF=박지훈(수원), 김승용(광주), 박주호(송실대), 기성용(서울), 이상호, 오장은(이상 울산), 백승민(전남) ▲FW=한동원(성남), 신영록, 하태균(이상 수원), 심성재(제주)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교생 박성호, 407야드 날려 ‘장타왕’

한국골프 장타자 선발전대회

고교생 박성호(17·제주관광산업고)가 407야드가 넘는 드라이버샷을 날리며 한국골프 장타왕에 올랐다.

박성호는 27일 강원도 원주 오코밸리 골프장에서 열린 2007 한국장타자선발전 대회 결선에서 네번째 시도까지 아웃브라운스(OB)를 냈지만 마지막 시도에서 407야드를 날려 우승했다.

1980년대 여자배구 국가대표 센터

로 활약했던 유애자씨의 아들인 박성호는 상금 500만원과 함께 9월 17일 일본에서 열리는 장타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앞서 네차례 치러진 예선에서 최고 380야드를 날렸던 박성호는 결선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27야드나 경신하는 괴력을 뽐냈다.

박성호는 “네번째 시도까지 OB가 불안했지만 집중력을 갖고 친 마지막 한방이 (페어웨이로) 들어와 너무 기뻐다”고 말했다.

가이 ‘총알 탄 사나이’

세계육상선수권 男 100m 우승

미국의 타이슨 가이(25·사진)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됐다.

가이는 26일 밤 일본 오사카가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부 100m 결승에서 9초85에 결승선을 끊어 데릭 앳킨스(바하마·9초91), 세계기록 보유자 아사라 파월(자메이카·9초96)을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5번 레인에 나선 가이는 전반 레이스에서 파월에 뒤졌지만 중반부터 폭발적인 스피트를 펼쳐 추격에 성공했다.

이어 마지막 피치에 한층 더 파워를 실은 가이는 70m 지점을 넘기면서 대역전을 해냈고 이후 선두로 독주했다.

9초77의 세계기록을 세 차례나 짝은 파월은 막판 스피드가 급격히 처지면서 앳킨스에도 0.05초 뒤져 3위에 머물렀다.

1987년 대회 칼 루이스(미국)와 벤 존슨(캐나다)이 펼친 ‘세기의 대결’을 떠올리게 한 이날 레이스에서 기대했던 세계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